

외국인의 한국어 의성어 인식 난도에 대한 연구*

김진만**

-차 례-

1. 서론
2. 교육용 의성어 목록 선정
3. 의성어 인식 난도 실험
 - 3.1 실험 대상
 - 3.2 실험 방법
4. 의성어 인식 난도 실험 결과
 - 4.1 남녀별 결과
 - 4.2 한국 문화 경험 여부별 결과
 - 4.3 의성어의 의미군별 결과
5. 결론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NRF-2021S1A5B5A17047780)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를 선정하고 이중 일부를 사용하여 외국인의 한국어 의성어 인식 난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기초사전』을 활용하여 의성어를 추출하고 형태·의미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의성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총 49개의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어 의성어 인식 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피험자들은 15개의 문항 중에 평균 6.9개를 맞히어 정답률 46.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평균 정답률에 피험자의 성별 차이는 없었지만, 한국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의성어를 ‘사람’, ‘동물’, ‘사물’의 세 의미군으로 나누었을 때 ‘동물>사물>사람’의 순서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의성어, 소리를 흉내 내는 말, 의태어, 인식 난도, 한국어 교육, 어휘, 사전

1. 서론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다. 본 연구는 의성어의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주목하여 한국어 의성어가 대상이 내는 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실험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의 실제 소리와 의성어로 나타낸 소리가 유사하다면 한국어를 접해 보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해당 의성어가 어떤 대상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어 의성어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 난도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국어 의성어는 의태어와 함께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경험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어휘이다.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의성어와 의태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한국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도 부족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극적으로 교수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황을 묘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그 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어휘를 추출하고 빈도수에 따라서 그 난도를 결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외 대학 기관에서 출간하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강항비(2013), 당리민(2017), 이주한(2019), 흰티미풍(2022),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노정은(2018), 유치원 교사 지침서와 동요 등을 분석한 진아름(2011)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방식의 문제는 교재에 실린 의성어나 의태어가 난도에 맞게 적절하게 쓰인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출현 빈도

에 주로 의지하였다는 것이다. 간혹 동일한 의성어가 초급과 중급, 중급과 고급 교재에 쓰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해당 어휘가 더 많이 출현한 단계를 찾아서 난도를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휘의 난도 결정에서 빈도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지만 절대적 조건은 아님에도 지나치게 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별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문제도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형태적이나 음운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하나의 단위처럼 처리되어 교육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언어의 자의성 측면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의성어는 언어의 보편적 특징인 자의성이 결여된 어휘로서 소리와 의미가 비교적 유연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의태어와 달리 의성어는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일지라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성어가 대상의 소리를 충실하게 흉내 내고 있을수록 학습자들이 쉬운 어휘라고 인지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측면이나 교수·학습적 측면 모두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태어를 배제하고 의성어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들 중 일부를 실험에 사용할 것이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성어가 대상의 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한국어 의성어의 인지 난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교육용 의성어 목록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배제한 상태에서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림 2] 교육용 의성어 목록 선정 방법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여 표준어로 등재된 의성어를 찾는다. 박동근(2015)에서는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의 총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CD판의 DB에서 의성어와 의태어 목록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본 연구도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인터넷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접속한 후,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자세히 찾기’ 기능에서 품사 정보는 ‘부사’, 찾는 말은 뜻풀이 설정 후 검색어 ‘소리’를 입력하여 의성어일 가능성이 높은 목록을 추출하였다. 이후 ‘-이/히’의 부사 파생어와 품사에서 부사와 감탄사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걸러내었다. 그리고 뜻풀이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여 ‘~는 소리’로 풀이되는 것은 남기고, ‘~는 소리. 또는 모양’으로 풀이되는 의성 의태어를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확보한 한국어 의성어는 모두 793 개이다.

[그림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성어 추출 방법

이어서 해당 의성어가 『한국어기초사전』에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쉬운 한국어사전으로 한국어 교수·학습에 필요한 5만 항목의 어휘가 실려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어휘를 초급, 중급, 고급 어휘로 등급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기초사전』을 검토하여 확보한 의성어의 수는 135개이다. 이중 ‘멍멍, 야옹, 콜록콜록’의 3개의 어휘는 중급 수준의 어휘로 분류되어 있지만 나머지 132개의 어휘는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확장 어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미·형태적으로 유사한 의성어를 제외하는 과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의성어를 선정하였다. ‘퐁당’과 ‘퐁당퐁당’처럼 첩어의 형태를 갖는 것들 중에서는 보다 의미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반복형을, ‘갈갈’과 ‘꺄꺄’처럼 큰 의미 차이 없이 자모음 교체로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들 중에서는 큰말인 ‘꺄꺄’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젓먹이가 우는 소리인 ‘으앙’과 갓난아이가 잇따라 우는 소리인 ‘응애응애’처럼 의미가 유사하여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분류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판단으로 보다 자주 사용되는 말로 생각되는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래의 <표 1>과 같이 최종적으로 49개를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로 선정하였다.

<표 1>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목록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49개
개굴개굴, 귀똥귀똥, 깍깍, 깨갱깨갱, 꺾꺾(01), 꼬끼오, 피꿀피꿀, 꿀꿀(02), 꿀꿀(01), 끽끽, 끼익, 둥둥(01), 따르릉, 딸꾹딸꾹, 땡땡(01), 떨거덕, 맴맴(02), 멍멍(01), 부르릉부르릉, 부스럭부스럭, 부엡부엡, 뼈꾹뼈꾹, 뼈거덕뼈거덕, 뼈악뼈악, 뽕뽕(01), 소쩍소쩍, 석, 씹씹(01), 야옹(01), 어허허, 에취, 음매(01), 응애응애, 찰랑찰랑, 짹짹, 쟁그랑쟁그랑, 칙칙폭폭, 퉁퉁, 퉁퉁, 콜록콜록, 콧르릉, 콧콧, 쿠당탕, 쿵쿵, 킁킁, 텃병텃병, 푹(01), 풍덩풍덩

3. 의성어 인식 난도 실험

3.1 실험 대상

한국어 의성어가 대상의 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청취 실험을 진행하였다. 의성어가 대상의 소리를 잘 흉내 내고 있을수록 한국어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어 의성어와 의성어가 흉내 내고 있는 대상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험자 모집은 미국의 델라웨어 주에서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 모집된 피험자는 모두 34명으로, 남자 17명과 여자 17명이었다. 남성의 평균 나이는 20.3세이고 여성의 평균 나이는 19.4세로, 전체 평균 나이는 19.8세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 이중 16명은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을 접한 경험이 있었지만 18명은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표 2>는 자세한 피험자 정보이다.

<표 2> 피험자 정보

남성 피험자	나이	한국 문화 경험	여성 피험자	나이	한국 문화 경험
M1	20	무	F1	22	무
M2	18	무	F2	19	무
M3	18	무	F3	18	무
M4	18	유	F4	18	무
M5	28	유	F5	19	무
M6	18	무	F6	18	유
M7	21	유	F7	21	유
M8	19	무	F8	19	무
M9	21	유	F9	19	유
M10	21	유	F10	19	무
M11	21	유	F11	19	무
M12	21	유	F12	20	유
M13	19	유	F13	21	유
M14	19	유	F14	18	무
M15	19	무	F15	19	유
M16	20	무	F16	21	무
M17	24	유	F17	20	무

1) 피험자 모집과 실험은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자의 지인에 게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거나 한국어에 노출된 경험이 적은 피험자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험자를 모집하기에도 모집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사전에 실험 진행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실험 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실험 중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긴밀히 소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기에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실험이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3.2 실험 방법

실험은 조사자와 피험자 간 1:1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전 피험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피험자에게는 [그림 3]의 실험지가 제공되었다. 먼저 피험자는 한글과 국제음성기호로 표기된 15개의 한국어 의성어 목록을 보고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조사자가 한국어 의성어를 두 번씩 읽어 주어 피험자가 의성어의 소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피험자는 “A word imitating the sound made when a car stops suddenly”와 같은 뜻풀이를 보고 해당 소리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는 의성어의 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의성어를 선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15개의 의성어는 앞서 선정한 49개의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의 일부이다.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목록 전체를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의성어를 실험하기에는 피험자의 인지적·시간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실험 목록을 축소하였다. 15개의 의성어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흉내 내는 대상의 소리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들어봤을 법한 것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의성어를 의미군별로 나누면 사람에 관한 소리 5개(겹겹, 딸꾹딸꾹, 에취, 응애응애, 쿵쿵쿵쿵), 동물에 관한 소리 5개(꼬끼오, 꿀꿀, 멍멍, 야옹, 음매), 사물에 관한 소리 5개(끼익, 따르릉, 부르릉부르릉, 쨍그랑쨍그랑, 칙칙폭폭)이다.

II. The following **Onomatopoeic words** describe the sound associated with the thing or action being named. Listen carefully to the experimenter. In order for you to answer the next question, the experimenter will say aloud the words twice.

1	갈질 [kalkil]	6	달궂달궂 [talbaktalbak]	11	움미 [ummi]
2	꼬끼오 [kikkio]	7	명명 [myeongmyeong]	12	웅어웅어 [uengyeoungyeoung]
3	쿨쿨 [kulkul]	8	부르릉부르릉 [bururungbururung]	13	헛그랑헛그랑 [heotgurangheotgurang]
4	끼익 [kikiik]	9	야옹 [yaon]	14	칙칙족족 [chikchikjokjok]
5	따르릉 [tarurung]	10	어휘 [euiwi]	15	콧콧콧콧 [kollolokkollolok]

After listening to the experimenter, please match the **Onomatopoeic words** to the sound that seems to express the following situation(s).

Situations	Number
A word imitating the sound made when a car stops suddenly.	()
A word imitating the sound of a cat crying.	()
A word imitating unreserved and loud laughter.	()
A word imitating the sound of a cow or calf crying.	()
A word imitating the sound made when one sneezes.	()
A word imitating the sound made when a train belches out smoke.	()
A word imitating the sound of a bicycle bell ringing.	()
A word imitating the sound when a rooster crows.	()
A word imitating repeated coughing sounds from deep in one's chest.	()
A sound imitating a baby's continuous crying.	()
A word imitating the sound of a dog barking.	()
A word imitating the sound made when thin iron pieces fall or clash with each other.	()
A word imitating the sound made repeatedly when a car moves.	()
A word imitating the sound made when a pig grunts.	()
A word imitating the sound of a series of hiccups.	()

[그림 4] 의성어 선택 실험지

4. 의성어 인식 난도 실험 결과

4.1 남녀별 결과

한국어 의성어 인식 난도에 대한 남녀별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남녀 평균 정답률

피험자	평균 정답 수(개)	평균 정답률(%)
남성	6.9	45.9
여성	7	46.7
전체	6.9	46.3

남성 피험자는 15개의 문항 중에 평균 6.9개를 맞히어 평균 정답률은 45.9%를 보였다. 남성 피험자 중에서 M15는 3개 문항을 맞히어 정답률이 20%로 가장 낮은 반면에, M9는 11개의 문항을 맞히어 정답률 약 73.3%로 가장 높았다.

여성 피험자의 경우에는 평균 7개의 정답을 맞히어 평균 정답률은 46.7%를 기록하였다. 여성 피험자 중에서는 F14가 2개 문항을 맞히어 정답률 13.3%로 가장 낮았으며, F3, F4, F7 3명의 피험자는 11문제를 맞히어 약 73.3%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남녀 모두 약 46%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정답률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t=-0.12$, $p=0.905$ (two tailed)로 남성과 여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성어의 소리를 듣고 해당 의성어가 흉내 내는 대상을 맞히는 데에는 피험자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한국 문화 경험 여부별 결과

다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 여부에 따라 정답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아래의 <표 4>는 한국 문화 경험에 따른 정답률이다.

<표 4> 평균 정답률

한국 문화 경험 여부	평균 정답 수(개)	평균 정답률(%)
유(16명)	8	53.3
무(18명)	6	40
전체	6.9	46.3

한국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16명의 평균 정답 수는 8개로, 평균 정답률은 53.3%를 보였다. 이 중에서 M7은 5개의 문항의 정답을 맞히어 정답률 약 33.3%로 가장 낮은 반면에, M9와 F7은 11개의 문항을 맞히어 약 73.3%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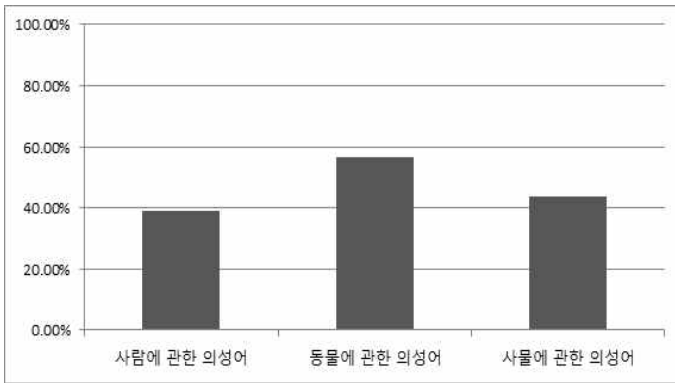
한국 문화를 접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18명의 피험자의 경우에는 평균 정답 수 6개, 평균 정답률은 40%를 기록하였다. 이 중에서 F14가 2개 문항을 맞히어 13.3%로 정답률이 가장 낮았으며, F3과 F4는 11 문제를 맞히어 약 73.3%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 여부가 정답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 변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2.27$, $p=0.03$ 으로 나타나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국 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리를 듣고 한국어 의성어가 흉내 내는 대상을 추정하여 맞힐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의 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답률이 10% 이상 높다는 것은 의성어가 그만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경험이 반영된 어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는 학습자들에게 의성어가 그리 어려운 어휘로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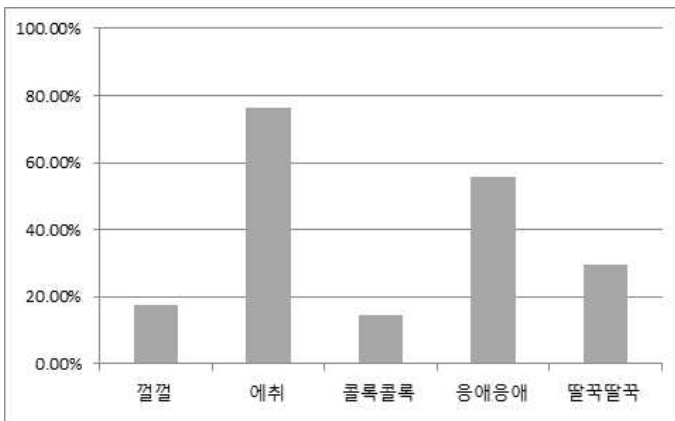
4.3 의성어의 의미군별 결과

마지막으로 의성어를 의미에 따라서 ‘사람’, ‘동물’, ‘사물’로 나누어 정답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3]은 실험에 사용된 한국어 의성어를 세 가지의 의미군별로 분류하였을 때 피험자의 정답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의성어의 의미군별 정답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사람에 관한 의성어는 평균 정답률 38.8%, 동물에 관한 의성어는 평균 정답률 56.5%, 사물에 관한 의성어는 평균 정답률 43.5%을 나타내었다. ‘동물>사물>사람’ 의성어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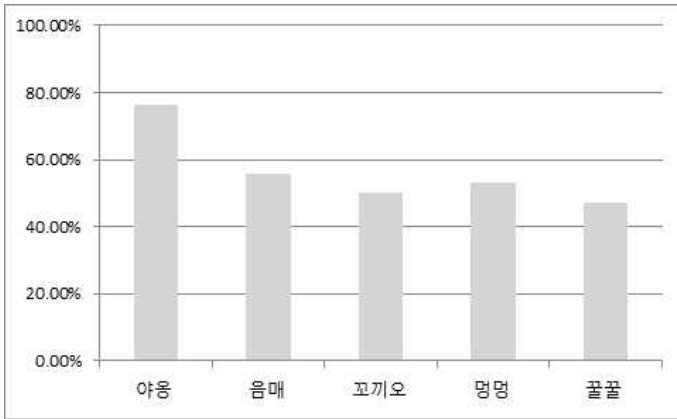


[그림 6] 사람에 관한 의성어 세부 정답률

의성어의 의미군별 세부 정답률을 살펴보면, 먼저 [그림 5]에서와

같이 사람에 관한 의성어는 ‘에취>응애응애>딸꾹딸꾹>겉겉>콜록콜록’의 순서로 정답률이 높았다. ‘에취’는 34명 중에서 26명이 정답을 맞혀 정답률 76.5%를 기록한 반면에 ‘콜록콜록’은 34명 중에 5명이 맞혀 정답률 14.7%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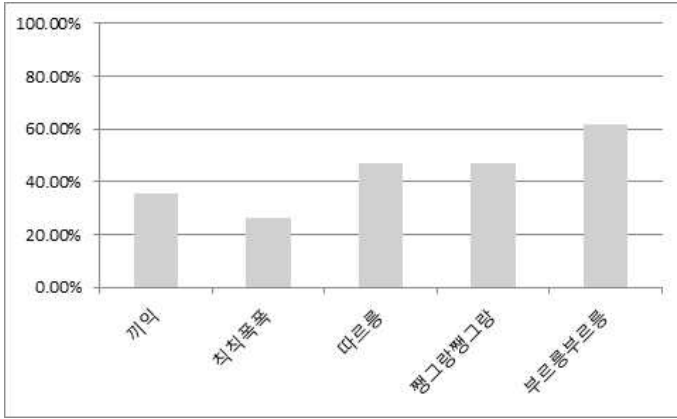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에취’는 확장 어휘로, ‘콜록콜록’은 중급 어휘로 분류되어 ‘콜록콜록’이 ‘에취’보다 더 쉬운 어휘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인지 난도에 대한 실험에서는 ‘에취’의 정답률이 ‘콜록콜록’보다 약 60% 이상 높았다.



[그림 7] 동물에 관한 의성어 세부 정답률

동물에 관한 의성어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야옹>음매>멍멍>꼬끼오>꿀꿀’ 순서로 정답률이 높았다. 고양이의 울음소리인 ‘야옹’은 26명이 정답을 맞혀 76.5%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에 돼지의 울음소리인 ‘꿀꿀’이 34명 중에 16명이 정답을 맞혀 정답률 약 47%를 나타내었다.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고 있는 의성어의 경우에 대부분 정답률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 의성어들이 대상의 소리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8] 사물에 관한 의성어 세부 정답률

사물에 관한 의성어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이 ‘부르릉부르릉>짹그랑짹그랑>따르릉>끼익>칙칙폭폭’의 순서로 정답률이 높았다.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자동차가 출발할 때 내는 소리인 ‘부르릉부르릉’으로, 21명이 정답을 맞히어 정답률 61.8%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기차가 내는 소리인 ‘칙칙폭폭’은 34명 중에 9명이 맞히어 정답률이 26.5%로 가장 낮았다.

실험에 사용된 15개의 의성어의 정답률은 ‘에취=야옹>부르릉부르릉>음매=웅애웅애>멍멍>꼬끼오>꿀꿀=따르릉=짹그랑짹그랑>끼익>딸꾹딸꾹>칙칙폭폭>결결>콜록콜록’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어휘는 7개, 그 미만의 정답률을 보인 어휘는 8개였다. 실험에 사용된 15개의 어휘 중에 ‘멍멍, 야옹, 콜록콜록’은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중급 어휘로, 나머지 어휘는 확장 어휘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본 실험 결과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이 인지적으로 느끼는 난도는 ‘콜록콜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어의 난도를 판정할 때 본 연구의 인지 난도가 함께 고려된다면 해당 어휘의 등급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중 일부를 선택하여 한국어 의성어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 난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49개를 선정하였다.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목록을 선정한 연구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교재에 출현한 빈도에 의존하여 그 목록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연구 방식을 탈피하여 교육용 의성어 49개를 선정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여 전체 의성어를 추출한 후에, 이중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에 등재된 어휘를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교육용 의성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때 자모음 교체로 어감 차이를 보이는 어휘, 큰말과 작은말, 의미적 동질성이 있는 어휘 등을 제외하는 방식을 더하여 교육용 어휘 목록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어를 접한 경험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성어의 인지 난도를 알아보았다.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의성어가 대상의 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실험에 사용된 15개의 의성어 중에서 피험자들은 평균 6.9개의 의성어를 맞히어 약 46%의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실험에 쓰인 15개의 의성어의 평균 정답률은 14.7%에서 76.5%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답률에 남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한국 문화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의성어를 세 가지 의미군으로 나누었을 때, ‘동물>사람>사물’의 순서로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실험 결과는 한국어 의성어가 대상의 소리를 비교적 잘 흉내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의성어가 비교적 쉽다고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성어의 난도를 결정할 때 이러한 인지 난도를 고려하게 된다면 한국어 의성어의 등급을 지금과 달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목록을 선정하고 실험을 통해 의성어의 인지 난도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어 의성어가 대상의 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의성어의 일부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는 점과 의성어의 인지 난도가 실제 의성어의 등급 판정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까지 확장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아쉬움은 추후 연구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the Difficulty of Foreigners Recognizing Korean Onomatopoeia

Kim, Jinman(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elect a list of onomatopoeia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heck the difficulty of foreigners' perception of Korean onomatopoeia. To this end, a total of 49 onomatopoeia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were selected by extracting onomatopoeia using 『Standard Korean Dictionary』 and 『Basic Korean Dictionary』 and excluding onomatopoeia that overlap or are similar in form and meaning. In addition,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difficulty of foreigners recognizing Korean onomatopoeia.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experiment on subjects who had never learned Korean, the subjects answered an average of 6.9 out of 15 questions, recording a 46.3% correct answer rate.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this average correct answer rate, but the group that answered that they had experienced Korean culture recorded a significantly higher correct answer rate than the group that did not. In addition, when onomatopoeia was divided into three semantic groups by "people," "animal," and "things," the correct answer rate was high in the order of "animal>things>people."

Key words : Onomatopoeia, A word imitating sounds, Mimetic word, Cognitive difficulty, Korean language education, Vocabulary, Dictionary

[참고문헌]

■보고서

한송화 외.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2015, 국립국어원.

■논문

강항비.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의태어의 목록 선정과 교육 내용 연구」, 2013,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 「한국어교육에서의 의성어, 의태어 지도」, 『언어사실과 관점3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4, 169-190면.

김일환·이승연, 「한국어 교재의 어휘 사용 양상」, 『우리어문연구48』, 우리어문학회, 2014, 187-218면.

노정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초등학교 1,2학년군의 의성어·의태어를 중심으로」, 『漢城語文學』39,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8, 69-102면.

딩리민.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교육 방안 연구」, 2017,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나리. 「의성어 교육방안 제안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의 ‘웃음’ 의성어 인식 비교」, 『영주어문37』, 영주어문학회, 2017, 283-310면.

박동근.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의 음운 비교」, 『한말연구37』, 한말연구학회, 2015, 177-203면.

박미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준별 의성어·의태어 목록 연구」, 2009,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의주·강현화, 「한국어교육용 어휘 선정 쟁점 연구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19-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23, 119-155면.

이유경.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 선정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언어문화학1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247-278면.

이주한.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의성어·의태어 목록 선정과 교수방안 연구」, 2019,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아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의성어·의태어 선정과 교육 방안 연구」, 2011,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호평. 「교육용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목록 선정 및 유형 분류: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

으로」, 2013,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티미퐁.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어휘 목록 선정 연구」,
2022,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타 자료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